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3월 강한 물가 압력... 작년 비해 3.5% 상승
- Bloomberg: 3월 근원 미 물가지수 예상 상회... 금리 인하 보류 가능성

[미국 금융]

- WSJ: 은행들, 비은행대출업체에 반격
- Bloomberg: 국채 수익률 급등... 트레이더들 올해 금리 인하 두차례만 반영
- WSJ: 4월 15일까지 세금 신고 안 하게 되면?

[미국 생활]

- CNN Business: FCC, “연방 지원 기금 고갈로 5월에 저소득층 인터넷 사용료 부담 커”

[주택]

- Bloomberg: 미 모기지율 또다시 7% 상회... 주택 수요 감소

[인공지능]

- WSJ: Elon Musk and Jamie Dimon, “AI, 인간보다 똑똑하고 혁신적인 기술 변화”

[글로벌 경제]

- CNBC: WTO, “글로벌 무역 회복... 지정학적 위험은 우려”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N Business: 황금 취업 시장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불안 겪고 있는 Z세대
- Bloomberg: 토요타, 차세대 ‘4러너’로 현대와 포드 견제
- Bloomberg: 인텔, 새로운 AI 가속기 공개 ... 엔비디아에 도전장
- Bloomberg: 스타벅스, 주문 오류 줄이기 위해 조용한 매장 설계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Inflation Comes in Hotter Than Expected at 3.5% in March **3월 강한 물가 압력... 작년 비해 3.5% 상승**

- 3월에 인플레이가 계속 강하게 나타나 연준이 6월부터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측정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3월의 경우 전년 동월에 비해 3.5% 상승했다고 연방노동부는 수요일 발표했다. 2월 물가는 연율 3.2%였다.
-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3월의 경우 전년 동월에 비해 3.8% 증가했다.

WSJ 기사

Bloomberg: US Core CPI Tops Forecasts Again, Likely Delaying Fed Rate Cuts**3월 근원 미 물가지수 예상 상회... 금리 인하 보류 가능성**

- 3개월째 연속해 근원 물가가 예상을 뛰어넘어 연준이 올해 말까지 금리 인하를 연기할 정도로 물가 압력이 거세다.
- 식품과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을 배제한 이른바 근원 소비자 물가가 2월에 비해 0.4% 상승했다. 1년전 동월보다는 3.8% 상승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근원 물가지수가 일반 물가지수보다 물가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것.
- 물가 지수를 상승시킨 것은 주택 비용과 휘발유 비용으로 나타났다. 하우스링과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는 작년 대비 4.8%나 올라 지난 2023년 4월 이래 가장 크게 상승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WSJ: Banks Strike Back Against Private****은행들, 비은행대출업체에 반격**

- 최근 수년간의 현상으로 예금을 받는 미 최대 투자은행들이 블랙스톤이나 아폴로 글로벌과 같은 비은행 경쟁업체들에 힘을 잃고 있었다.
- 은행들의 우려는 이른바 파생자산 펀드 매니저 등이 기업들에게 직접 대출하는 이른바 개인신용 업체들이 투자은행의 비즈니스를 잠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 그러나 올해 들어서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올해 첫 분기에 직접적인 대출기관으로부터 받는 부채 1백20억달러가 이른바 광범위한 신디케이티드 융자 시장을 통해 채용자 되었다고 PitchBook LCD는 밝혔다. 이는 이전 두개 분기 중에 발생한 현상으로부터 큰 반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WSJ 기사

Bloomberg: Yields Soar as Traders Price in Just Two Fed Rate Cuts in 2024**국채 수익률 급등... 트레이더들 올해 금리 인하 두차례만 반영**

- 오늘 강력한 물가 압력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트레이더들은 올해 2차례 이상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베팅을 철회해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다
- 연준 관리들이 3월 회의에서 중간 예상치로 금리를 3차례 인하하겠다는 예상을 희박하게 만드는 강한 물가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는 이미 3월 일자리보고서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 금리 정책에 가장 민감한 2년물 국채의 경우 23베이시스 이상 오른 4.97%, 10년물은 작년 11월 이래 처음으로 4.5%를 상회했다.

Bloomberg 기사

WSJ: What Happens if You Don't File Your Taxes by April 15 4월 15일까지 세금 신고 안 하게 되면?

- 미국인 납세자 총 1억4천6백만명 중의 1천9백40만명이 세금 신고 연장을 요청할 것이라고 연방국세청은 예상하고 있다.
- 신고 연장 요청 없이 신고 기간까지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는 신고 불이행 과태료와 세금 지급 불이행 페널티를 물게된다. 그리고 세금과 페널티에 대해 매일 복리로 붙는 이자율로 내야 한다. 현재 이자율은 8%. 세금 미신고 과태료는 엄격하고 빨리 누적된다.

WSJ 기사

[미국 생활]

CNN Business: Internet price hikes for low-income Americans could begin in May as federal funds run dry, FCC says FCC, “연방 지원 기금 고갈로 5월에 저소득층 인터넷 사용료 부담 커”

- 팬데믹 중에 2천3백만명에 달하는 노인, 상이군인, 학생들을 포함한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사용 비용을 저렴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사용되어 왔다. 이른바 저렴한 인터넷 연결 지원 프로그램(Affordable Connectivity Program).
-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의회가 연장하지 않고 있어 이들 인터넷 사용자들은 5월부터는 인터넷 사용 지원금을 못 받게 된다는 것. 즉, 지원금의 46%만 받게되어 나머지는 자신이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밝혔다.

CNN Business 기사

[주택]

Bloomberg: US Mortgage Rates Top 7% Again, Weakening Demand for Homes

미 모기지율 또다시 7% 상회... 주택 수요 감소

-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미 모기지율이 지난주에 7%를 상회했다. 그에 따라 지난 2월 중순 이래 주택 구매 신청 건수가 가장 크게 줄었다.
- 4월 5일로 끝나는 주의 30년 고정 모기지율이 10 베이스 포인트 오른 7.01%를 기록했다고 모기지은행 협회는 밝혔다. 이에 따라 모기지은행협회의 주택 구입 모기지 신청 지수는 4.7%나 하락해 한 달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Bloomberg 기사

[인공지능]

WSJ: Elon Musk and Jamie Dimon's AI Predictions and What They Mean for the Future of Humanity

Elon Musk and Jamie Dimon, “AI, 인간보다 똑똑하고 혁신적인 기술 변화”

- 이번 주 일론 머스크와 제이미 다이먼이 AI가 인간보다 더 똑똑해지고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라 말했다.
- 월요일 머스크는 Norges 은행의 CEO Nicolai Tangen와의 인터뷰에서 “아마 내년 말쯤에는 인간보다 더 똑똑한 AI가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인터뷰는 머스크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X를 통해 방송됐다.
- 월요일 JP 모건 Chase의 CEO 다이먼은 투자자들에게 AI가 지난 수백 년 동안의 주요 기술 발명만큼 혁신적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 말했다. “인쇄기, 증기 기관차, 전기, 컴퓨팅과 인터넷 등을 떠올려보라”고 그는 연례 서한에 적었다.
- 또한 다이먼은 “AI가 비즈니스에 어떤 효과를 미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결과는 놀라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WSJ 기사

[글로벌 경제]

CNBC: WTO forecasts rebound in global trade but keeps geopolitical risks in focus

WTO, “글로벌 무역 회복...지정학적 위험은 우려”

- 수요일 WTO가 글로벌 무역이 올해 점차 반등할 것이라 예측했다. 높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사라지면서, 2025년 도래 이전부터 글로벌 무역이 더욱 성장하리라는 것.
- WTO는 “세계 무역 전망 및 통계 보고서”에서 세계 총무역량이 2024년에 2.6% 증가한 뒤, 2025년에 추가로 3.3% 증가할 것이라 예측했다. 이는 인플레이션과 고금리가 국제 무역을 압박해 2023년의 1.2% 감소 후에 회복된 수치이다.

- WTO는 최근 세계 무역이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지만, 지정학적 긴장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 간의 계속된 전쟁이 에너지 시장으로 확산될 경우, 무역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Ralph Ossa(WTO 수석 경제학자)는 말했다.

CNBC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CNN Business: 'I cannot afford to live': Gen Z is full of financial angst despite inheriting a golden job market

황금 취업 시장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불안 겪고 있는 Z세대

- Z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뛰어들면서, 윗세대가 누린 편이성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 90년대 후반에서 2010년 초반 사이에 태어난 Z세대가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고용 시장 중 하나인, 현시점에 어른이 되었다는 점에 주목해 보겠다. 특히 대침체(Great Recession)로 알려진 암흑기에 직장을 고하던 밀레니얼 세대와 비교하면, Z세대의 상황은 희망적이다.
- 하지만 Z세대에게도 어려움은 존재한다. 그들은 3년 동안의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생필품 가격이 많이 올랐다. 팬데믹 동안 식료품 가격은 급등했고, 기업들은 공급망이 안정화된 이후에도 가격을 올리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인플레이션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더욱 쉬워진다. 주택 소유자는 주택 담보 대출 및 주택 판매를 통한 현금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Z세대는 부동산 시장에 진입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했다.

CNN Business 기사

Bloomberg: Toyota Aims to Beat Hyundai and Ford With Its All-New 4Runner

토요타, 차세대 '4러너'로 현대와 포드 견제

- 4월 9일 토요타는 최첨단 엔진 기술, 세련된 스타일, 개선된 대시보드 인터페이스를 포함한 새로운 '4Runner'를 공개했다.
- 토요타는 올봄에 재생산된 랜드크루저를 출시할 계획이며, 2023년에 판매를 시작한 그랜드하이랜더의 생산량을 늘리는 데도 주력을 다 하고 있다.
- 토요타는 세 중형 SUV의 재단장을 통해, 판매 모멘텀을 회복하고 경쟁사들을 따라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소비자들을 고려할 때, 해당 기업이 가파른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Intel Unveils New AI Accelerator in Bid to Challenge Nvidia 인텔, 새로운 AI 가속기 공개 ... 엔비디아에 도전장

- 인텔이 새로운 버전의 AI 칩을 출시한다. AI 칩은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
- 화요일 인텔은 올해 3분기에 '가우디 3(Gaudi 3)'라 불리는 업데이트된 프로세서를 보급할 예정이라 말했다. 해당 칩은 AI 시스템 훈련 및 완성된 소프트웨어 실시 과정에서의 성능 향상을 위해 고안됐다.
- AI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테크 기업들이 AI 가속기 칩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지만, 엔비디아가 혜택의 대부분을 누리는 상황이다. 인텔의 CEO Pat Gelsinger는 구버전의 가우디는 기대했던 시장 점유율 상승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새로운 모델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Starbucks Is Designing Quieter Stores to Make Sure It Gets Your Order Right

스타벅스, 주문 오류 줄이기 위해 조용한 매장 설계

- 스타벅스가 신규 및 리뉴얼 매장에 배경 소음과 진동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배플(baffle)과 같은 소재를 벽에 설치시켰다.
- 해당 소재를 사용할 경우, 고객들이 더욱 쉽게 의사소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리스타가 고객의 말을 전해 듣는 데 겪는 어려움도 줄일 수 있다.
- 스타벅스 북미 지역 사장 Sara Trilling는 "개선된 음향은 주문 정확도와 고객 경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말했다.

Bloomberg 기사

웰스파고, S&P500목표가 5,535로↑...모건스탠리 "美경제 노랜딩"

JP모건체이스, S&P500지수 목표가 4,200 제시...주식투자 자제 경고도

웰스파고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 목표가를 대폭 상향하고, 모건스탠리는 미국 경제가 '연착륙'(soft landing)을 넘어 '노랜딩'(no landing)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미국 금융기관들이 미국 경제와 증시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웰스파고 증권의 크리스 하비 주식전략 총괄은 미국 증시의 상승 랠리가 올해 내내 이어질 것이라면서 연말 지수 전망

치를 기존의 4,625에서 5,535로 상향 조정했다.

블룸버그는 웰스파고의 목표가가 자신들이 추적하는 금융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전망치라고 전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ccsend.com